

청년 실업자의 진로정체감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영준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The Effect of the Career Identity of Unemployed Young People on Employment Behavior

Young-Joon Cho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더 증가한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를 통해 우리 청년실업자들의 효과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직행동을 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의 변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변인은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고, 구직행동 변인은 구직준비, 구직의지, 구직태도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 평균은 3.06으로 중간값에 근사하였고, 구직행동의 평균은 3.37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둘째,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30대가 20대보다 자기이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구직행동은 진로정체감 하위변인인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2가지 변인으로부터 25.3%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청년 실업자들 대상의 진로정체감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구직신청시 진로정체감을 위한 심리적 상담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employment behavior among the unemployed youth of Korea, which has seen an increase after the onset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ought to promote effective employment behavior among unemployed youth.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career identity and employment behavior variable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was administered to randomly selected unemployed youth. The career identity variables comprised the sub-variables of self-understanding and job-understanding, and employment behavior variables included the variables of readiness, willpower, and job-seeking attitude. As per the results, first, the average career identity score was 3.06, which was close to the median value, and the average score for employment behavior was 3.37. Second, males had a relatively higher job understanding than females, and those in their 30s had a higher degree of self-understanding than those in their 20s. Third, employment behavior was affected to the extent of 25.3%, by two variables, self-understanding and job understanding, which are the sub-variables of career identity.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we propose to launch a program to improve the sense of career identity among the unemployed youth and to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ing involving the candidate's career identity when applying for a job.

Keywords : Unemployed Young People, Career Identity, Employment Behavior, Self-understand, Job-understand

*Corresponding Author : Young-Joon Choi(Dankook Univ.)

email: d333300@dankook.ac.kr

Received August 25,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Revised September 21, 2022

Published December 31, 2022

1. 서론

코로나 이전의 청년층의 실업률의 경우 국가정보통계서비스[1]에 의하면 2019년 6월 현재 20대가 10.1%로 40대 이상의 일반 성인들의 2.4~3.2%의 3배 이상이었는 데 코로나로 인해 이 비율은 줄지 않았고, 그나마 청년 세대가 차지한 직업군은 고용이 불완전하고 소득이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었다[2]. 청년세대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그 일로 자아실현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하는 구직행동은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복지이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3].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휴업, 무급휴직, 계약종료 및 해지 등으로 취업문제가 심화되고 청년세대의 채용이 위축되면서, 청년 실업자들의 증가는 가구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를 넘어 빈곤을 확대와 경제 불황, 국가의 존치와도 연계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4].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중추가 되어야 할 20~30대 청년층이 구직의 기회를 갖지 못해 실업상태에 빠져 청년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은 개인문제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해 외적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정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청년 실업자들의 내적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인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보니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3,4]. 청년 실업자들에게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자신과 직업의 이해를 통해 목표, 능력 및 흥미에 대한 진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정도이며 또, 진로정체감은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직업선택에 대한 기대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은 선행연구[5,7,8]를 통해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고 측정되었다. 청년 실업자들에게 자기이해는 직업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 흥미, 성격,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경험이 풍부해서 자기이해가 높은 경향이 있다[7]. 직업이해는 직업관련 정보와 자료를 탐색하고, 자신의 직업관을 파악하며 직업선택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업관련 정보접근이 용이할수록 직업이해가 높게 나타난다[8,9].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행동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취업의사와 노동능력을 가지며 취업 전까지의 취업을 위한 모든 행동을 구직행동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직을 위한 청년 실업자들의 준비와 구직의지 그리고 구직을 위한 노력, 태도로 청년 실업자들에게 필수적인 구직을 위한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9-11]에서는 구직행동을 세

분화하여 구직준비와 구직의지 그리고 구직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한 현실에서 청년 실업자들의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성과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미비하고 한정적인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책임질 청년 실업자들의 효과적 구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청년층 중 실업상태에서 구직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진로정체감이 그들의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이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직업교육 및 노동교육 분야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내용타당성이 입증된 문항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의 일반적 변인과 진로정체감 변인 그리고 구직행동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체감 변인은 선행연구[5,7-9]에서 제시되었던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2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행동 변인은 선행연구[10,11]에서 도출된 구직준비, 태도, 의지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행동 하위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구직준비행동으로 도구준비 활동, 실천적 노력, 정보수집활동으로 구성하였다[11,12]. 구직행동을 구직행동과 구직태도로 정의하고 구직활동의 요소로 구직노력, 구직방법, 구직태도를 하위요소로 구성한 연구도 있었다[11,13]. 각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구직행동을 구직준비[11,12], 구직의지[10,11], 구직태도[11-13]의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행동과 진로정체감의 변인들은 리커트 5단계 평정척도(Likert-type)로 측정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지역 20~30대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2022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표본을 구직행동을 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를 무작위로 추출하

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2 조사도구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지는 20대와 30대 청년 실업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3가지 변인을 조사하였다. 주요변인인 진로정체감 변인으로는 자기이해(6), 직업이해(5) 등 11개의 하위변인을 구성하였고, 구직행동 변인으로는 구직준비(5), 구직의지(5), 구직태도(4) 등 1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총 25개의 하위변인 설문지를 설문지에 활용하였다. Table 1은 각 변인의 하위변인 구성과 신뢰도 분석결과이다.

Table 1. Consist of the contents and the reliability

Area	Contents	Number of contents	Cronbach's α
Career Identity	Self	6	.875
	Occupation	5	.793
Employment behavior	Readiness	5	.831
	Willpower	5	.805
	Attitude	4	.784
	Total	25	-

진로정체감 변인들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요인 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구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선행 연구[5,7-9]에서 내용타당성이 입증된 자기이해와 관련된 하위변인과 직업이해와 관련된 하위변인의 2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체감의 하위변인으로 자기이해(se)는 자신이 잘하는 일:se1, 자신의 장단점 파악:se2, 진로결정의 자기 확신:se3, 자신에게 매력을 주는 일:se4, 자신에게 즐거운 일:se5, 생활영역에서의 자기확신:se6 등의 6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체감의 하위변인으로 직업이해(oc)는 직업선택의 이해:oc1, 충분한 급여의 직업선택:oc2, 올바른 직업선택:oc3, 직업선택 문제의 수월성:oc4, 고려 가능한 직업:oc5 등의 5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체감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두 변인으로 구성되었고, 두 변인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약 60.37%로 나타났다.

Table 2. Validity analysis of career identity

Areas		components	
		se	oc
Career Identity	se1	.685	.424
	se2	.716	-.020
	se3	.724	.390
	se4	.749	.206
	se5	.781	.338
	se6	.696	.307
	oc1	.440	.646
	oc2	.276	.644
	oc3	.501	.596
	oc4	.471	.614
	oc5	-.053	.787
Eigen Value		3.906	2.734
% of Variance		35.511	24.856
Cumulative %		35.511	60.367
number of contents		6	5

연구의 주요변인이 구직행동 변인들의 요인분석 결과, Table 3와 같이 구인타당도가 나타났다.

Table 3. Validity analysis of employment behavior

Areas		components		
		re	wi	at
Employment behavior	re1	.738	.132	.036
	re2	.669	-.005	.188
	re3	.797	.050	.113
	re4	.781	.059	.120
	re5	.819	.061	-.026
	wi1	-.047	.536	.222
	wi2	-.057	.733	.026
	wi3	.219	.810	.076
	wi4	.128	.862	.087
	wi5	.112	.778	.110
	at1	.203	.036	.795
	at2	.156	.125	.811
	at3	-.084	-.064	.741
	at4	.149	.094	.721
Eigen Value		3.086	2.887	2.498
% of Variance		22.043	20.620	17.846
Cumulative %		22.043	42.663	60.509
number of contents		5	5	4

구직행동은 선행연구에서 내용타당성과 구성타당성이 확인된 구직준비(re), 구직의지(wi), 구직태도(at)의 3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준비(re)는 취업교육이수:re1, 경력준비:re2, 전공자격증 취득준비:re3, 취업정보수집:re4, 취업특강 수강:re5의 5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의지(wi)는 조건미비에도 지원:wi1, 입시직에도 지원:wi2, 기피직도 지원:wi3, 제시된 조건 불만족해도 취업:wi4, 일자리만 있으면 취업:wi5의 5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태도(at)는 취업준비에 시간과 노력투자:at1, 취업에 최선을:at2, 취업은 바람직:at3, 취업은 유익한 행동:at4의 4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 구직준비(re), 구직의지(wi), 구직태도(at)의 3가지 요인으로 구직행동이 분석되었으며, 약 60.5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2.3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서 경기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80부(84.4%)를 회수하였으나, 적절치 않은 15부의 설문지를 제외, 실제 36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차이검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 등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4 연구문제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이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2.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3.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자기이해와 진로이해)는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결과

청년 실업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았다.

연구 대상자인 청년 실업자들을 성별로 나뉘보면, 남성이 54.8%(200명)이고, 여성이 45.2%(165명)로 나타

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기 66.3%(242명), 33.7%(123명)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48.5%(176명)이고, 고졸이 24.1%(88명), 전문대졸이 23.6%(86명), 고졸미만 3%(11명), 대졸초과 1.1%(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reas		number	Ratio (%)
Gender	Male	200	54.8
	Female	165	45.2
	Total	365	100.0
Age	20's	242	66.3
	30's	123	33.7
	Total	365	100.0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11	3.0
	high school graduation	88	24.1
	technical university graduation	86	23.6
	university graduation	176	48.5
	above university graduation	4	1.1
	Total	365	100.0

선행연구에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요인 타당도가 확인된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 변인과 하위변인의 일반적인 기술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Descriptive analysis of key variables

variable	mean	SD
Career Identity	3.06	.697
Self se	3.21	.778
Occupation oc	2.91	.736
Employment Behavior	3.37	.467
Readiness re	3.11	.839
Willpower wi	2.90	.725
Attitude at	4.09	.556

주요변인인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3.06, 표준편차는 0.697로 평균은 5점 척도의 중간값(3) 정도이었다. 진로정체감의 하위변인을 보면, 자기이해(se)의 평균은 3.21, 직업이해(oc)의 평균은 2.91로 나타났다. 구직행동의 평균은 3.37, 표준편차는 0.467로 나타났다. 구직행동의 하위변인을 보면, 구직준비(re)는 평균은 3.11, 구직의지

(wi)의 평균 2.90, 구직태도(at)의 평균은 4.09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자들을 성에 따라 진로정체감 하위변인과 구직행동 하위변인의 평균 차이를 통계분석하면,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6.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gender

variable		N	M	SD	t	p	
Self	se	m	200	3.28	.781	1.78	.077
	f	165	3.13	.768			
Occupation	oc	m	200	3.00	.732	2.592	.010*
	f	165	2.80	.728			
Readiness	re	m	200	3.12	.827	.174	.862
	f	165	3.10	.855			
Willpower	wi	m	200	2.94	.773	1.071	.285
	f	165	2.85	.662			
Attitude	at	m	200	4.15	.513	1.964	.050
	f	165	4.03	.600			

청년 실업자들의 성 차이에 따른 유의성은 직업이해(oc) 변인에서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이해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 구직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구직행동을 하려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남성이 직업정보 접근 등에 보다 능동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직업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변인인 자기이해(se)와 구직행동의 하위변인인 구직준비(re), 구직의지(wi), 구직태도(at)에서는 성별 유의차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하위변인과 구직행동 하위변인의 평균 차이를 통계분석하면, Table 7과 같았다.

Table 7.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age

variable		N	M	SD	t	p	
Self	se	20's	242	3.13	.789	2.76	.006**
	30's	123	3.37	.733			
Occupation	oc	20's	242	2.88	.743	.901	.368
	30's	123	2.95	.722			
Readiness	re	20's	242	3.14	.850	1.08	.279
	30's	123	3.04	.815			
Willpower	wi	20's	242	2.89	.739	.143	.887
	30's	123	2.90	.701			
Attitude	at	20's	242	4.10	.583	.224	.823
	30's	123	4.09	.502			

청년 실업자들의 연령 차이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자기이해(se) 변인에서만 나타났다. 30대의 청년 실업자가 20대 청년 실업자 보다 자기이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대 청년 실업자의 지난은 삶의 경험과 연령으로 인해 자기이해가 상대적으로 20대 청년 실업자 보

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하위변인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정체감 하위변인과 구직행동의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았다.

Table 8.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	se	oc	re	wi	at
se	1				
oc	0.697**	1			
re	0.447**	0.535**	1		
wi	0.260**	0.268**	0.393**	1	
at	0.319**	0.262**	0.301**	0.385**	1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을 보면, 1%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이해(se)와 직업이해(oc)의 상관관이 0.69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이해(se)와 구직의지(wi)의 상관관이 0.2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직행동에 영향을 주는 진로정체감 하위변인들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자기이해와 진로이해의 2가지 진로정체감 하위변인들로 구성된 구직행동에 관한 회귀식이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on the employment behavior

Regression Model	B	S.E	Beta	t	p
constant	4.31	.122		35.45	.000***
Self	.400	.049	.535	8.12	.000***
Occupation	.135	.052	.171	2.59	.010*

R= 0.525 R²= 0.276
Adj R²= 0.253 F= 42.076 p= 0.000***

회귀식에서 회귀계수의 유의미를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진로정체감 하위변인인 자기이해와 진로이해 2가지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진로정체감의 하위변인 표준화 회귀계수는 자기이해가 0.535로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진로이해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0.171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행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각 직종에 대한 진로이해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신이 해당직종에 적합한지에 대한 자기이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정된 결정계수 R²이 0.253으로 나타나 자기이해와

진로이해의 진고인식의 하위변인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의 구직행동에 약 25.3% 정도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즉, 청년 실업자의 진로정체감 변인들이 구직행동을 유의성있게 약 25.3%를 설명하고 있었다.

4. 결론

우리나라 20~30대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3.06으로 척도의 중간값에 근사하였고, 구직행동의 평균은 3.37이었다.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구직행동의 하위변인인 구직준비와 구직태도는 평균이 중간값인 3.0 이상이었으나, 구직의 지는 3.0 이하로 중간값보다도 낮았다. 장년 층인 50대들의 구직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11]와 비교할 때,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준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구직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유의차는 직업 이해에서만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이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4]에서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에 따른 유의차는 자기이해에서만 나타났고, 연령이 높고 삶의 경험이 많은 30대가 20대 보다 자기이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구직행동은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2가지 진로정체감 하위변인으로부터 약 25.3%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고, 선행연구[4]의 자기효능감이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자기이해의 변인이 구직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직업이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첫째,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에 대한 구분된 프로그램을 노동교육 및 취업분야에서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 실업자는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소 30년 이상을 직업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구직활동을 위한 자기이해와 직업이해는 필수적 요소이기에 이를 진로정체감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행동 중에서 구직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노동강도의 고려없이 청년 실업자들이 생각하는 보수에 따른 직업귀천의 사고를 상쇄시킬 수 있는 구직 이전의

직업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진로교육을 제안한다. 셋째, 20~30대 청년 실업자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구직신청을 할 때,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자기자신의 이해와 직업이해에 관한 심리적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실업자가 자기이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심리검사 등도 동반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gender/age,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 (accessed September 1, 2022)
- [2] H. S. Ahn, J. H. Seo, New Income Security in Era of Uncertainty after the COVID-19,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Vol. 26, No. 3, pp.63-118, 2020.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ART002641411>
- [3] J. S. Ko, Career education strategy for successful employment of unemployed young people, *50th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020 Spring Conference*, pp. 9-30, 2020.
- [4] Y. J. Choi, G. J. Park, The Impact of the Youth'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Attitud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0, pp.40-46,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0.40>
- [5] Y. H. Son, S. H. Lee, The Analysis of Choice of University and Maj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to Career Identity by Using the Latent Transition Analysi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3, pp.139-157, 2019. DOI: <https://doi.org/10.32341/JCER.2019.09.32.3.139>
- [6] I. H. Choi, K. H. Lee, M. J. Park,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Awareness, Occupation Aspiration, and Vocational Aspiration Typ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11, No. 2, pp.261-278, 2012.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86868>
- [7] Holland, J. L., Daiger, D. C., Power, P. G. *My vocational situatio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orporated. 1980.
- [8]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http://hdl.handle.net/10371/49697>
- [9] T. J.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Identity, Resilience, Job Capacity, Job Search Behavior of Re-employment Job Seekers*, Doctor's thesis, Dongbang Culture University, 2018.

- [10] H. S. Lee, Y. G. Lee, The Impact of the Middle Ag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5, pp.33-40,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5.033>
- [11] Y. J. Choi, G. J. Park, An Analysis of Effects on Job Seeking Activities of Unemployed in Fifties in Korea: Based on The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3, pp. 522-528,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3.522>
- [12] Y. S. S, O. H. K,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Vol.24, No.1, pp.343-353, 2018.
- [13] Y. M. Moon, A study on Influence of Job Search Activities on Elderly Employment, *Social Welfare Review*, Vol.11, pp.139-156, 2006.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594778>
-

최 영 준(Young-Joon Choi)

[정회원]



- 1990년 3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2019년 2월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교육관련 법 및 제도, 직업교육